

정읍시, 동학혁명 위상 강화 마스터플랜 짚는다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 맞아 시설 정비 등 선양사업 추진 10월엔 '국제세미나' 개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앞두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등 선양사업을 강화한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앞두고 혁명기념시설 정비와 신규 조성 등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혁명의 성지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함이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혁명의 불씨를 지폈던 고부면 사발동문 작성지(地)와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등 유적지를 찾아 문화재를 포함한 혁명기념시설 정비·조성에 따른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정읍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양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적 위상 정립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정읍 거주 혁명 참여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고부면 사발동문 작성지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 주민들로부터 기념시설 정비·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의 자녀와 손녀, 증손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혁명 참여자나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상징물 설치를 통한 선양을 위해 기념시설 정비와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학여행 코스나 혁명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정읍과 전라도 역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역사"라며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황토현 전승

일인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국내 첫 '필(必)환경 마라톤대회' 열린다

4월 12일 '세만금국제마라톤' ...참가자 일회용품 안쓰기 행사

군산시는 제17회 세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국내 최초 친환경 스포츠대회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등 참가자 모두가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나서는 등 '필(必)환경 마라톤대회'로 치른다는 것이다.

오는 4월12일 열리는 세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을 받았다.

대회 코스는 월명종합경기장을 출발해 근대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원도심, 금강

하구둑, 철새 조망대, 나포 들녘 등을 달리게 된다.

종목은 42.195km(풀코스), 21km(하프코스), 10km, 5km 등 4개이며, 선수와 동호인 1만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풀코스 5만원, 하프코스 3만원, 5km 1만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횡단보도 사고예방 LED 바닥신호등 설치

정읍시, 상동 교차로에 시범 운영...야간운전자에도 도움

정읍시는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상동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 내 횡단보도 37m 구간에 바닥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닥신호등은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신호 인식 정보 제공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지점에 신호등과 연계돼 운영되는 신호등이다.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패널을 매립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면서도 보행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정읍시는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반응과 예방효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주요 횡단보도에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바닥 신호등은 보



정읍시 상동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내 설치된 LED 바닥신호등. <정읍시 제공>

행자 안전을 강화해 보행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닥신호등을 비롯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촌마을 LPG저장탱크 보급 남원시, 산동·대강면 95가구

남원시가 도시가스 보급이 힘든 산동·대강면에 LPG저장탱크를 보급한다.

남원시는 지난 19일 산동·대강면 주민 9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저렴한 가격으로 취사 및 난방용 LPG를 공급하는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달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찾았다. 적합도와 탱크 부지 확보 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산동면 태평마을(54가구)과 대강면 입암마을(41가구)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남원시는 마을주민들이 9월부터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시설설계를 끝내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난방비 부담이 컸던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시니어모델들이 고창문화의전당 교육실에서 워킹 연습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우리는 열정 넘치는 시니어 모델"

고창 50대 이상 15명 워킹·미소짓는법 등 배워

"워킹 어때요. 모델 같네요. 새로운 도전 그 자체가 즐거움이예요." 고창문화의전당 교육실. 레드카펫이 깔리고 빠른 비트음악이 흘러나온다.

시니어 모델들이 음악에 맞춰 워킹 연습에 구슬땀을 흘린다.

백발의 한 노신사는 "내 나이가 일흔인데 멋 내기 딱 좋은 나이"라며 활짝 웃는

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50대 이상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 시니어모델 교육'이 인기가.

교육은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이 맡아 고창문화의전당 교육실에서 4월까지 진행된다.

미소 짓는 법부터 기본워킹, 무대매너

등 전문모델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배운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과 개성은 극대화 화해 모델 지망생의 재능과 열정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시니어모델 교육생은 15명으로, 2개월 과정 수료 후 활력 넘치는 전문 시니어모델이 돼 지역축제는 물론 전국 패션쇼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고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지원액은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한

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를 구비해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5월 예산 소진때까지이며, 올해 6월부터는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H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OREAN
SGI서울보증
AXA AXA
AIG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